

성체, 권위적 상징성과 그로 인한 도시적 단절이 의미하는 것은?

도시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Context로 여겨져야 할까?

근자에 준공된 대검찰청사는 10월말 대법원이 서소문에서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완성되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하나로서 서초동일대는 소위 법조인들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대법원을 위시하여 법조의 3륜기관이 다 모이게 되었다. 이곳에 늘어선 건축물

서초동 법조타운의 완성과 대검찰청사의 건축적인 의의

Completion of Seocho-dong Legal Town &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the Supreme Public Procurator's
Office Buildings

李範宰 /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Peom-Jae

을 보면, 대법원청사, 대검찰청사,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법원청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청사, 사법연수원 등이다. 이외에도 서초경찰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서초동 법조타운중에서 이 4개의 건축물이 완공됨으로써 서초동일대의 도시적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곳은 원래 넓은 야산과 구릉이 자리잡아 있었고 서울시청이 이전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던 지역이다. 더욱이 현재도 서초경찰서 일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리잡고 있는 부분에는 많은 녹지공간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 대단위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또한 그것도 이른바 법조인들이 10년이래로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뒤섞이는 형상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개의 대규모 건축물 이외에 앞으로는 관계되는 건물들이 더욱 건설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단지는 대법원 청사를 맨 남측을 하여 북측의 3개 단지에 동측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청사, 중앙에는 서울고등검찰청사, 서측에는 이번에 완공된 대검찰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이 세개의 건물은 각기 동측으로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왔으며, 그래서 도시적으로 보아도 점차 동측으로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세개의 건물은 남향을 하고 일자로 늘어세워져 있다.

거의 그 건축물들은 일자로 나란히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축물들은 서초동일대를 동서로 잘라내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유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넓은 옥외 조경면적과 여유있는 Open Space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건축적 연계성이 있다기 보다는 거의 독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독립된 건축물들로 보여진다. 이러한 건물들 사이에는 거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일정한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독립된 단위의 건축물이면서 대개는 건축이 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또 중앙에 중앙현관을 가지고 있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의 고밀도의 건축적 밀집 현상에 익숙해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저밀도의 한가한 대지 활

용에 대해 의구성을 갖게 될 것이다.

서울이라는 도시적인 맥락으로 보아 이 건축물군들이 과연 서울에 어떤 도시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인가? 서울은 가로면에 위치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동서로 놓여져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조와 채광을 위한 남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아파트 군들이 강남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한강변은 동서로 이루어진 아파트건물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충분히 이러한 요소들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단지의 주 도로는 어느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청사인 경우는 남측의 도로가 서초로와는 한 블록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동측에 우면로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주 진입로는 우면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주 진입방향은 동측이 아니고 남측으로 되어 있다. 건축물도 우면로에서 보면 측면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검찰청사는 서초로에서 중앙으로 따서 들어간 도로를 이용하여 서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역시 건축물의 측면을 보면서 진입하되 중앙 현관은 남측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서울고등법원청사와 같은 진입방법인 것이다. 서초로가 강남네거리를 지나서 동측으로는 테헤란로와 연결되고 있으나, 교대네거리를 지나서 서측으로는 가다가 끊어진 도로와 같기 때문에 이 서초로를 주 진입로로 설정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초법조타운의 각개의 건축물들이 갖는 진입의 어색함은 거대한 규모의 건물에 대응하는 도로망의 합리적인 체계의 미비함에서 기인하고 있다. 대 검찰청사는 반포로의 동측에 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축물로 들어가는 주요 진입 방향은 역시 건축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반포로라는 주 도로에서 보면 이 건축물도 역시 측면을 보이고 면해 있다. 대법원청사는 이곳에서는 유일하게 서초로라는 남측도로에 면해있고 이 건물의 주 진입구의 위치는 정면중앙 남측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면으로 진입한다면 건축물의 정면을 보고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단지의 구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더 명확한 진입과 내부순환도로망의 체계적인 연계 및 도로 시스템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 단지내에 건립된 건축물들은 주위 도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앞서의 측면을 보면서 진입하여야 된다는 것에 있다. 이는 건축물 자체는 권위적 상징성을 대단히 강조하면서도 진입시의 이미지는 서툴게 처리된 것같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물 그 자체의 상징적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완결된 상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주고 있고 건축물에 진입하는 과정은 기능적으로만 처리하여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하나같이

상징적 이미지와 남쪽으로의 열린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도로망으로서 시민에게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포로, 우면로 등의 남북간 도로와 서초로라는 동서간의 기존 도로망에 대한 해석이 주도면밀하였다면 그 도로들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서울지방검찰청사와 대검찰청사사이에는 업무적 연계성이 강하게 성립된다고 한다면 두 건물사이에는 보다 적극적인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연결도로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건물과 건물사이의 상호간의 연계성이 유추되지 않는 것은 두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 첫째의 요인은 건물과 건물의 이미지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 각기의 독립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다. 역지로 이야기 한다면, 아무런 건축적인 독특성이 없는 건조한 상태의 얼굴을 가진 것이 공통적이라고 할까 그외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규모의 건축물이 가져야하는 약간의 건축적 어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지역에 세워지는 어떠한 건축물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또하나의 것은 각기의 건축물들이 상호간에 아무런 공간적으로, 특히 외부공간이 공유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자체의 대지내에서 필요한 외부공간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완결되어지고 있다. 이는 조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건축물사이에 옆의 건물, 또는 앞뒤의 건축물사이의 공간이 그대로 버려져 있고 서로 공유하려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앞의 건축물의 뒷면은 그대로 뒷면으로 버려져버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단지내의 건물들은 서울고등법원청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내에서 도로에 접한 배치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각기 정한 도로에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고층 건물이 가져야 하는 네가지 방향성에 대한 고려를 상실하여 버렸다는 의미이다. 도시의 지역내에 이곳은 북측부분은 녹지로 형성되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고층으로 건축물이 세워질때 이 건축물은 자체의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체 도시의 주요한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면이 아닌 다른 부분의 표현이 도시에 어떠한 것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석하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이 단지내의 네가지 건물은 정면과 측면이 매우 명확하여 서울 한강이남의 의미있는 지역을 동서로 획일적으로 분할하여 그 북쪽의 시민의 삶과 남쪽의 시민의 삶을 절단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에서부터 시작된 도시절단행위는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계획에서도 정면을 너무 중요시 한 결과

삶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도 절단하게 되어 아쉽게 느껴진다. 이 단지의 남측에 위치한 지역들은 법조 관련 업무와 연관이 많은 건물들과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 바, 거대한 네 개의 성앞에 와글와글한 서민들의 집들이 들어차는 고대 중세도시와 같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지금부터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 단지내에 건립된 4개의 건물중 대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건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들은 결국 서초동 법조타운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검찰청사에도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청사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건축물로서 그 위치나 건물의 크기 등으로 서울 강남에서의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강력하게 발산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두개의 동으로 분절되어 있고, 두개의 동이 각각, 6층과 20층에 연결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측에 있는 것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법형사부, 동측에 있는 것은 서울지법민사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사용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수직의 세장된 선이 강조되어 있고, 저층부의 포디움 부분도 수직의 열주가 타워부분의 수직적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외부의 마감은 백색 외장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법원건축물이 설계 당시때까지 가지고 있던, 석재의 둔탁하고 장중하면서도, 소위 권위가 도처에 배어져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획기적인 선택을 하였다. 일전에 완공된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정한 형식의 인용이나 답습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건축이 갖는 독자적 성격을 평가하여 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건축물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하였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벽으로부터 두개의 덩어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두개의 건축물사이에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숨통을 틔웠을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상승하면서도 하늘을 거슬리지 않는 겸손함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이 두개의 사이로 구름다리가 걸려있으므로 해서 시민에게 둔탁하고 엄숙한 분위기라고 인식된 일반대중의 인식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는 짙은 갈색의 타일을 외벽의 주조로 하여 전반적으로 시대적인 감각성이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있던 바와 다르지 않다. 저층부에 포디움이 있고 상부는 타워 형식으로 되었다. 상부의 타워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권위적인 건물을 만들려고 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건축물의 창조

는 벽에서 사각형의 오프닝이 생기도록 하였는 바, 이는 바로 실내의 기능이 개개의 작은 단위의 실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도 기능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근대건축의 원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한 것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Box 그 자체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건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사드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의 차별성을 제시하는 것도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늘 있어 왔던 덩어리의 껍질을 설계하고 시공한 것이다.

포디움부분의 열주는 수직으로 세워진 것이 사람에게 는 권위를 상징한다거나, 관아 공공 건축은 다소간에 그 이미지에 있어서 장중하고 권위가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몇가지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니, 열주를 세워서 수직적요소로 강조하는 방법이니, 여의도의 국회의사당건물을 비롯하여 흔히 보는 관청, 공공 건축물이 이러한 것이다. 둘째는 대칭을 사용하여 좌우가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동일하게 보임으로서 이를 권위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기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강렬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일전에 완공된 전경기념관이나, 천안의 독립기념관의 건축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수직적 요소와 좌우대칭의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욱 더 그러한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중요한 개념적 배경은 관공서 건축물은 권위적이고, 장중하고 엄숙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이 시작될 때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 서울고등검찰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은 이러한 개념이 과연 시대적으로 합당한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 기념비성에 귀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체의 건축적 어휘가 생략되고 한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를 희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건축물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의 초점을 다시 환원한다면, 과연 그러면 이 건축물이 과연 권위적 기념성을 바로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다른 주위의 건축물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건축물에 강력한 인식성을 부여하는 차별성이 없는 것이 그 한 요인이고, 건축물의 중앙이나 또는 사람의 시선이 흔히 집중되는 가운데 부분에 인상적인 요소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한 요인이고, 건축물의 외곽을 이루는 양단부의 강력하지 못한 처리에 의해 주위의 환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는 것이 그 마지막 요인이라고 하겠다. 즉 이 건물은 권위적 기념성이라는 의미에서 건축적으로 그 개념을 명

확히 전달하는 데에도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가장 나중에 완공된 대법원청사는 II형배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부에는 16층 높이의 주 타워가 세워져 있고 양쪽에는 법원행정처와 법원도서관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윙이 설치되어 있다. 이 두개의 윙은 각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좌우대칭의 것으로서 중앙부에는 주 현관이 위치하고 11층에는 대법원장실이 있다. 전체가 흰색 화강암을 사용하여 이른바 돌집의 분위기가 엄숙하게 표현되어 있다. 대법원은 189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사법제도가 도입되어 1백년만에 새로운 시대를 여기에 다시 연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서소문 청사로부터 이전하게 되어 있다. 지역적 특색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사법 최고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정리하고 새로운 청사를 가지는 것이 단지 새롭고, 현대적이고 그속에 거주하는 사법인들을 위한 기능적인 공간만을 얻는다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적어도 백년간 우리에게 있어왔던 대법원청사의 오래된 이미지가 담겨있는 건축적 요소들이 이번의 건축물에 어떠한 형식과 형태, 또는 이러한 추억이 담겨질 수 있는 이미지가 표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의 영육이 점철되어있던 구 청사의 타일마감과 아취 등의 건축적 어휘는 단지 그것이 84년이라는 오랜 옛날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현대적이라는 시대적 감각때문에 어느 한 구석도 취해지지 않고 다 버려진 것이 아쉽다. 서소문 청사는 1911년 구 한말의 대한제국 의정부청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대법원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역시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그 무엇을 표현하여야 한다는 일조의 강박관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역시 우리의 건축이 가져야 하는 하나의 사회적 제약일 뿐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른바 공공 관청 건축의 사회적 욕구가 아니었나 싶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자치정부들이 위주가 되어 각기의 자치단체의 청사나 말단의 대민 행정기구에서는 국민과 같이 직접 접촉이 가능하고 의미를 주는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다. 동사무소나 경찰서, 파출소 등이 과거와는 다르게 권위적이지 않고 현저하게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청사는 사회적 통념상 이러한 예를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증추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상징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더 다양한 건축적인 어휘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건물을 바라보는 다른 일반적인 대중의 시각일 수도 있다. 그것은 국회의 사당이나 정부청사와 같은 다른 국가증추기능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에 대등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의식이 건축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외국의 관공서 건축물도 이러한 범주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외양과 건물의 이미지가 다소간 현대적인 감각으로 마무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공간이라든가 공간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데에는 상당한 거리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하다고 할지라도 이 건물은 기능의 집적으로만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대한 건축적인 해석을 종합하여 본다면, 우선 단지의 공통적인 이미지가 없어서 단지라는 용어가 선뜻 사용되지 않는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몇개의 건물이 인접하였다고 해서 단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가 각기 개발 계획으로만 추진되어온 것같이 생각된다. 실체는 어떻더라도 결국 도로망에 대한 미숙한 시스템과 진입 축의 어색함들이 그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도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결국 상징적 권위를 추구하기 위해 정면성을 강요한데에서 출발되었다. 건축물의 배치는 일률적으로 정해짐으로서 거대한 성벽을 가진 4개의 성채들이 들어선것과 같은 단절을 부여하고 있다.

대검찰청서가 위치한 대지는 법조타운의 가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고, 동측에는 반포로가 남측에는 막힌도로를 경계로 하여 대법원청사와 인접하고 있다. 대지내에서의 배치를 보면, 남측면은 주차장, 옥외조경 등으로 확보를 하고 동측은 부출입구를 위하여 공지를 확보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은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출입과 상징적인 출입을 나누어서 건물의 정면성을 상징화하고 기능적인 출입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2원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물이 남향으로 위치하고 인접건축물인 서울지방검찰청사와 일렬로 세워지게 하였다. 반포로가 동측에 면해있고 이 도로가 대지에 가장 의미있는 것임에도 건축물이 동향으로 계획되지 않은 것은 앞서 이 건물이 속해져 있는 전체 타운의 강력한 사회통념상의 제약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나 다소 아쉬운 점이다.

만일 건축물이 반포로에 면한 부분에 정면이나, 주요한 이미지 전달의 배치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다른 건물과는 달리 건축물이 도시에 보다 풍부한 도시적 의미를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반포로가 갖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보다 이 건물이 일반 국민하고 접근하면서 친근감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가지는 반포로에 의미있는 건축물의 배치는 동서

로 절단된 도시의 맥을 최종적으로 서측 단부에서 닫아 줌으로써 도시의 외부공간을 형성해 주어서 성채들의 나열이 아닌 도시공간의 형성에 배려로 기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건물이 지금 있는 그 대로의 크기로 동향을 했을 경우에 생각될 수 있는 장점을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건물은 두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다. 동측에 위치한 15층의 건물이 본관인 셈이고 서측의 4층건물은 별관으로서 식당, 회의실 등등이 들어가 있는 부속 건축물이다.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부속건물이 동등하게 같은 선상에 비치되어 있다. 보통은 부속 건축물답게(?) 후면이나 후미진 곳에 건립되는 것이나 배치에서의 이와 같은 의미 부여는 대체적으로는 호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만 본관과의 덩어리의 차이가 많이 만들어짐으로서 덩어리들간의 부조화가 생기게 된 것이 티라고 하겠다.

건축물 전체는 화강암을 PC로 만들어서 조립식 공법을 사용한 석재 건축물이다. 석재가 가지는 이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많은 예를 보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상식적인 건축이미지 이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돌이 가지는 독특한 질감이나, 돌이 사용됨으로써 해서 건축적인 차별성이 달라졌다고도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곳의 석재 마감은 어찌본다면, 우리 현실에서 마지못한 선택일 수도 있다. 달리 이만한 건축물규모에 선택될 여지가 많은 마감자재도 없고 사회적 통념으로 보아도 별 의의없이 동의할 수 있는 자재로 이해할 수 있다.

15층이라는 층수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가 의문이 되었으나 별다른 의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건물자체는 어떠한 특별한 덩어리자체의 미적인 스타디프가 거처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좀더 고층화 될 수도 있거나, 저층화되어 여러개의 덩어리를 가지는 군집형 저층형 건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반포로라는 생활의 주축과 어찌면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건물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역시 권위적 상징성이 더 중요하게 인식된 건축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외부정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얼굴을 이루고 있는 창문의 패턴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사의 사각형 창문패턴과 동일한 것이다. 3~5층과 14~15층의 창문은 서로 연결되어 수직적 비례를 세장하게 하여 다른 층과는 다르게 한것은 저층부와 최상층이 사람의 이미지에 주는 의미를 생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려나 역시 단조롭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의 입면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것은 평면의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측 즉 후면에 위치한 Core때문에 정면보다는 후면의 입면구성이 덜 조정된 것같이 보여진다.

대지자체는 동측에서 서측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이를 잘 이용하여 동측부분에 부출입구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입은 이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남측의 입구는 소위 정문인 경우이다. 평면은 편심코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복도이지만 한편이 띄어져 있어서 북측이지만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기본좋은 복도와 엘리베이터홀을 형성하고 있다. 북측은 마침 녹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전망이 있어서 더욱 좋은 배치인 것으로 보여진다.

1층 현관홀은 대개의 건축물이 그렇듯이 2층까지 일부가 Open되어 있다. 그러나 Open된 2층부분이 투시되는 것이 아니라 벽체로 막혀져 있어서 넓이에 비해서 개방감이 시원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냥 뚫려져 있는 공간인 셈이다. 별관의 평면은 본관과 연결되는 연결 복도의 연결점부분은 홀로 되어있고 2, 3층은 각각 식당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도록 동선을 연계시켰으며 4층은 회의장겸 강당으로 되어 있다. 직원용의 예식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기능상 유효한 것으로 보여진다.

식당의 남측과 북측은 베란다로 형성되어서 여유를 갖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다만 그곳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그냥 비워져 있는 공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대검찰청의 기능으로 볼때는 아주 기능적으로 계획된 것이 이 건물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효한 공간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적 처리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 있지 않다면, 건축에서의 기본적인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능만을 충족했다고 해서 건물이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져야 할 것으로서 기능이외의 것중에서 건축공간의 질에 대하여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건축이 필요한 기능적인 것만을 담고 기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지고 필요한 부분만 조합하는데에 그친다면 콘테이너 Box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